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가이신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건축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계단'과 '우리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누워서 세상을 보던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서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아이가 첫발을 내디디며 느끼는 것도 달라진 높이에서 보는 기쁨이죠.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계단도 이런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전해 주죠.

진행자: 네. 그렇다면 계단이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김 선생님: 아래층과 위층은 들어오는 빛, 경치,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다른 공간입니다. 계단은 이렇게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 주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계단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교류하게 되고, 달라진 높이에서 세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계단을 통해 (딩동)

2. 이번에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소발자국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발자국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 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발자국 마크에 75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감자 재배에서부터 감자칩 생산까지 제품당 7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대략 50kg 정도인데, 이 정도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1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발자국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탄소은행,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은 개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3.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서툰 것 같아. 참, 근데 넌 부탁할 때마다 친구들이 잘 들어주던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니?

여 :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부탁할 때도 말하기 방법이 필요해.

남 : 그렇구나. 어떤 방법인데?

여 : 음……. 우선, '쉬운 부탁 먼저 하기' 방법이 있어.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말하기 곤란한 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면, 승낙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해. 다음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하는 건데, '어려운 부탁 먼저 하기'의 방법이야. 어려운 부탁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면 그때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남 : 그렇구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해야겠지. 그러니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겠어.

여 : 그런데, 부탁은 거절당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필요한 방법이 '호의 베풀기'야. 상대방이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부탁할 때 잘 들어주더라고. 네 번째 방법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야.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부탁을 하면 적어도 그중 하나는 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 마지막은 '긍정 대답 유도하기'의 방법인데, 이건 '날씨가 좋지요?'와 같이 부정하기 어려운 친교적 질문들을 먼저 하는 거야. 부탁받는 사람이 '네'라는 긍정의 대답을 계속하다 보면, 이어지는 말에도 긍정적으로 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

남 : 부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여 :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 테니 어떤 방법인지 알아맞혀 볼래?

다음은 여학생이 든 사례를 대화로 들려드립니다.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A(여) : 부탁이 있는데, 공책 좀 잠깐만 보여 줄래?

B(남) : 그래. 여기 있어.

A(여) : 내가 필기 못한 게 너무 많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빌려 가서 보고, 내일 돌려주면 안 될까?

B(남) : 그래 내일 꼭 갖다 줘.

4~5. 다음은 동아리의 면접 장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부장 : 교지 편집부에 지원하신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편집부장입니다.
학생들 : 안녕하세요.
부장 : 먼저, 지원 동기를 알고 싶은데요?
남 : 예, 저는 평소 교지를 만드는 작업에 호기심이 많았고, 미래에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여 : 중학교 때 제가 쓴 글이 교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직접 교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부장 :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남 : 기사는 발로 뛰며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 : 전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알려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부장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편집부원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남 :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여 : 전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생한 내용이 담긴 교지를 만들고 싶어요.
부장 :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교지에 '소설가와의 만남'이라는 특집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남 : 일단 소설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부딪쳐 봐야 알죠.
부장 : 어떤 소설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부딪친다는 거죠?
남 : 그냥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쓴 소설가를 찾아가는 거죠.
여 : 저는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소설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한 후 그 질문들을 인터뷰에 활용하겠습니다.
부장 :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준비하실 건데요?
여 :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물어야겠죠. 소설을 쓰게 된 계기나 소설가를 지망하는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등입니다.
부장 :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저처럼 편집부장이라면 편집 방향을 정할 때, 부원들과 의견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 : 저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체 의견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부원들을 계속 설득하여 멋진 교지를 만들 겁니다.
여 : 편집부장은 교지 편집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원은 당연히 부장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부장의 직권을 행사하여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